

韓國 國家發展의 回顧와 展望

本稿는 지난 3月 9日 美國原子力學會(ANS) 韓國
支部가 主擧한 第23回 月例技術討論會에서 「Korean
Development; Dynamics, Problems and Lessons」
라는 제목으로 특별강연한 內容을 번역 정리한 것이다.



李 漢 彬
〈前副總理(現 慶熙大教授)〉

韓國의 發展相은 最近 몇年間 實業界는 勿論
學界로 부터 많은 注目の 對象이 되어 왔다. 이
를 說明함에 있어 어떤 사람들은 財政 및 産業政
策上의 技術官僚들의 優越性을 讚揚하는가 하면,
또다른 사람들은 軍事獨裁政權의 過渡的인 能率
을 높이 評價하고 있다. 本人의 생각으로는 韓國
의 發展은 1945年以後에 韓國社會에 일어났던
深刻한 變革의 側面에서 理解돼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現象은 根本的으로 이 期間中의 韓國國
民들의 精神 및 知性的인 社會的인 成長過程의 結
果였다고 본다.

1. 教育의 發展이 經濟發展에 先行되었다

韓國의 發展의 原動力은 1945年 即後에 始作
된 普遍化된 教育이었다. 이 事業은 이 나라의
指導級 教育者들에 의해 提唱되어 처음에는 美
軍政廳(1945~48)後援下에 施行됐으며 그후 1948
年에 樹立된 李承晩大統領領導下의 새로운 韓國
政府에 의해 強力히 推進되었다.

40年代後盤에 韓國은 極貧國이었으며 1人當

年間所得이 50弗未滿이었던 것으로 記憶한다. 그
러나 韓國은 勇氣를 잃지 않고 6年制 義務教育을
全國的으로 實施하였는데 이것은 극히 貧困한
狀態에 놓여있던 나라로써는 매우 費用負擔이
큰 事業이었다.

이러한 非常한 社會底力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 물음에 대해서는 적어도 두가지 要因을 들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배움을 崇尚하는 儒敎文
化의 傳統이고 또 하나는 日本의 植民地統治가
가져온 現實主義思想이며 또 다른 理由로는 자
己子息에 대한 教育이 새로운 時代에 家族의 社
會進出을 위해 가장 確實한 길이라는 解放의 興
奮에서 온 思考方式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教育熱은 發展的인 推進力의 始發
點이 되었으며 이 불꽃은 社會底力의 源泉인 家
族水準에서 뿜겨진 것이다. 이것은 社會潛在力의
源泉인 家族에 의한 國家機能의 肯定的인 收斂
을 意味하는 것이었다.

배운 사람이 되겠다는 慾望은 多幸히도 무엇
이든 自己所有物을 갖겠다는 慾望도 수반하였다.
때마침 同時에 始作되어 韓國動亂(1950~53)中

遂行되었던 土地改革은 모든 農村人口들에게 土地를 分배해 주었다. 採算性이 없는 單位로 農지를 分配하는데 對한 經濟的인 利點은 그 當時 매우 疑問視되었지만 工業化의 前段階에서 唯一한 意義있는 資產을 골고루 나누는 이 방법은 헤아릴수 없는 社會的인 效果를 가져왔다. 이것은 工業化의 始作에 앞서 比較的 公正한 社會的인 出發點을 創出하였다. 農村이 主로 돼있는 社會에서는 土地改革이 普遍화된 教育制度에 의해 點火된 에너지發散 過程을 복돋았다.

이와 같은 過渡期에서 特別히 言及해둘 必要가 있는 또하나의 變化는 韓國動亂(1950~53)이며 이것은 그후의 發展段階에서 매우 큰 影響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 悲劇的인 物의 人的 受難은 社會를 더 平準化시키는 結果를 가져왔으며 또한가지 予測 할수 없었던 重要한 結果는 한 重要한 政治團體로써 軍이 登場한 것이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初創期에 韓國은 해야할 여러가지 基本的인 일을 갖고 있었다:

- (a) 政府機構의 構成
- (b) 動亂(1950~53)中 國民에 對한 實際的인 安全 保障措置
- (c) 戰爭으로 荒廢화된 經濟의 再建
- (d) 韓國에 對한 國際的承認 獲得

그러나 發展的인 側面에서 볼 때 政府가 大衆教育과 다음 世代에서 發展의 前提가 되었던 土地改革에 對한 基礎作業을 할수 있었다는 點에 留意하는 것이 重要하다.

初期에 國家運營을 主管했던 政治엘리트들은 大體로 獨立運動과 教育의 背景을 가진 아마추어 政治人들이었다. 그들은 解放後 몇年間의 不安狀態와 韓國動亂의 恐怖를 通해 國民들을 糾合할수 있었지만 戰爭으로 荒廢화된 經濟를 再建하는데는 時宜適切하게 效果的인 指導力을 指揮할 能力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 젊은 寡頭政治勢力이 自由黨이라는 形態로 出現했으며 이 黨의 核心黨員들은 日帝時代에 어떠한 制限된 官僚生活 經驗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

으나 그들의 指導方向은 새로 教育받은사람들의 要求와 變遷하고 있는 시대의 發展的인 要請에 對處하는데는 적합치 않았다. 이는 결국 1960年 李政權의 沒落을 가져왔다.

2. 經濟發展過程에서의 官僚政治의 觸媒 役割

大衆教育이 發展을 위한 社會的인 前提條件이었다고 한다면 官僚政治는 民間과 軍차원에서 모두 經濟跳躍의 索引車 役割을 했다. 1950년대 후반부터 몇가지 發展을 위한 조직이 官僚政治內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혁신의 영역은 외국에서 教育訓練을 받고 國家再建과 開發計劃이라는 急先務에 從事해온 젊은 층의 專門人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들 革新된 領域에는 3개의 主要分野가 있었는데 이는 建設部, 財務部, 韓國銀行이었다. 또한 이와 併行해서 몇가지 發展이 있었는데 그 하나는 急速히 擴張되고 있던 大學系統으로 부터 選拔된 새로운 人力을 迎入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大衆教育制度에 의해 育成된 젊은 社會的인 에너지를 그 당시에는 實地적으로 社會的인 지위와 威信을 갖춘 유일한 機構였던 官僚體制의 隊列로 誘導하는 役割을 하였다. 또한가지는 各種技術支援事業을 통해 民間 및 軍人 官僚政治內에서 廣範한 實務教育을 시작한 것이었다. 후자의 경우는 젊은 官僚들과 軍將校들 사이에서 일종의 「管理者的인 姿勢」를 갖추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 당시의 基準으로 볼 때 이러한 자세는 좀 急進的인 것으로 經濟的인 貧困과 같이 일부 다루기 힘든 問題들도 시간을 두고 어떤 체계적인 努力에 의해 解決될수 있다는 인상을 주려는 것이었다.

국민들사이에는 보다 積極的인 접근방법에 대한 要求가 膨大했는데 이는 주로 大學言論媒體를 통해 知識人들이 주도했다. 官僚政治體制下의 몇개분야에서는 確固한 開發計劃이 마련돼있어 時代의 흐름에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不幸히도 이러한 開發의 發想을 強力하게 뒷받침할만한

政治權力層의 엘리트들이 거의 없었다. 自由黨의寡頭政治는 權力維持에만 너무 執着했고 그 後繼者인 民主黨政權 역시 內部的인 불화로 너무 弱體化되었기 때문에 開發問題에 대해 適期的 支援을 해주지 못했다.

결국 이 問題는 1961년의 舉事로 權力을 掌握한 軍部內에서 確固한 後援者를 얻게 되었다. 이 새로운 그룹은 그들의 政權引受를 正當化시키기 위한 基盤이 매우 必要하였으므로 官僚엘리트들에 의해 마련된 經濟開發問題를 받아들였다. 이와 같이 새로운 社會組織으로 軍이 登場했는데 이 軍은 韓國動亂과 그 후 10년간의 防衛力增強으로 인해 推進力을 얻었고 活性化되었던 것이다. 官僚政治內部에 革新的인 要素의 存在가 必要條件이었다면 管理態勢를 갖춘 軍의 出現은 體系的인 開發을 定立시키는데 充分한 조건이 되었다.

經濟開發計劃을 실행에 옮기게 됨에 따라 그동안 潛在해있던 많은 社會文化的인 特性이 前面에 나타났다.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産業이라는 어려운 과제였다. 산업화 과정은 수백만의 韓國人들을 農業에서 製造分野로 誘致하였다. 農業은 密度가 높은 農村人口에 의해 년1회 收穫의 氣候條件下에서 營爲되는 實際的인 一毛作農事(쌀)이었으며 製造分野는 그들을 年中 多重交代制의 操業에 投入할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韓國歷史上 最初로 많은 人口가 所得이 높은 雇傭機會를 얻게 되었고 熱心히 일한 代價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오랫동안 간혀있던 모대한 社會에너지의 一大放出을 意味하는 것이었다.

産業化와 關聯된 또하나의 精神的인 發展은 經濟的인 推進過程에서 隨伴되는 貿易擴大가 가져온 결과로서 外部世界에 대한 視野가 더 넓어졌다는 것이다. 韓國은 거의 없다시피한 賦存資源에 높은 人口密度를 갖고 있기 때문에 製造業과 貿易主導型的 國家가 되기 前에는 달리 選擇의 餘地가 없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太平洋과 中東의 모든 國家들로부터 에너지와 原料를 輸入

해서 國內總生産高의 3분의 1이상을 輸出하고 있는 것이다. 이 過程에서 韓國은 이미 養成해놓은 教育받은 人力을 利用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미 教育받은 일반인들은 優位性을 살려 外部世界를 볼 수 있는 機會가 주어져 새로운 次元의 生活을 追加해서 營爲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發展過程에 의한 複合的인 效果는 일반인들의 物理的 空間에 대한 認識에 變化를 가져온 것이다. 現在 韓國은 史上처음으로 全國이 一曰經濟圈이 된 것이다. 이러한 生活空間의 縮小로 地域間的 比較는 勿論이고 全國의 모든 곳에 쉽게 接近할수 있게 되었다. 전자는 相對的인 貧困에 대한 새로운 感覺을 불러일으켰으며 이에 따라 開發問題에 대한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다.

3. 混亂의 渦中에서의 中産層의 登場

60년대와 70년대에는 여러 重要的 社會團體들의 形成과, 社會變化에 따르는 政府의 役割에 重大한 變化를 가져왔다. 이 期間中에는 産業化가 政府의 主要課題였다. 이 課業을 遂行하는 過程에서 엘리트들의 團合關係에 큰 變化가 일어났다. 또 한편으로는 經濟開發事業이 加重되고 軍의 政治엘리트들이 政權의 正當性을 確保하기 위해 經濟計劃의 成功에 漸漸 더 依存하게 됨에 따라 官僚政治勢力은 굉장히 膨脹하였다.

또한 한 거대한 産業分野의 出現은 開發事業을 계획, 주관하고 있던 관료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가져다 주었다. 더우기 政府와 産業계간의 相互協調關係를 돕기 위해 6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Think tank」(頭腦集團)들은 官僚政治를 더 強化시켰고 최소한 初期段階에서 후자에게 결여돼있던 技術的인 專門知識을 提供해주었다.

朴政權은 經濟開發과 政治的인 民主化라는 두 가지의 政府課題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겪었다. 朴政權은 후자를 犧牲시키며 전자를 成就하



려고 試圖했다. 그러나 이러한 試圖를 더 強力히 推進해 나갈수도 있었겠지만 후자를 看過할수는 없었다. 왜냐 하면 朴政權은 政治의 民主化를 부르짖던 1960년의 學生革命의 餘波로 執權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朴政權은 그의 다른 課題들을 成功의으로 遂行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支持가 必要했던 知識層의 젊은 世代들과 곧 대립하게 되었다. 이 政權은 政治活動과 大學言論媒體를 1970년대초반부터 組織的으로 계속 彈壓하였다. 大學言論界의 一部인사들은 政府의 行政 및 法律部處內의 黨派性이 강한 위치에 選別的으로 起用되었던 반면에 대부분의 知識層은 매우 苛酷하게 다루어졌다. 그 結果는 知識層의 憤怒를 사, 대립되는 政治路線과 一般國民으로 부터의 乖離現象을 가져왔다. 결국 매우 膨大해있던 官僚政治에 의해 지탱돼온 軍의 엘리트들의 團合體制는 教育받은 젊은 層을 비롯해 都市勤勞層으로 부터 漸次 遊離되는 結果를 가져왔다. 사실, 그 당시의 엘리트들은 그들이 支援했던 成功의 人事業들의 犧牲物이 되었던 것이었다.

4. 經濟發展은 政治發展을 強要했다

1980년대 중반까지 韓國社會는 새로운 高地에 다달았다. 30대중반의 일반인들의 教育水準은 12년간의 學校教育水準에 까지 이르렀다. 現在 1인당 國民所得은 2,588弗에 接近하고 있다. 結局, 韓國은 實際的으로 中產層의 社會가 되었다. 結論的으로 이것은 참으로 놀랄만한 社會的인 成就였다.

한 세대전만 해도 3분의 2가 農村인구였던 韓國은 3분의 2가 都市人口인 나라로 변했다. 텔레비전은 도시와 농촌 가릴것 없이 實際的으로 全世帶에 普及되었다. 韓國歷史上 最初로 거의 모든 國民들이 무엇인가를 所有하게 되었다. 이제 是 典型的인 工業國家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市民意識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반시민들은 그들이 支給한 稅金에 대해 公共서비스의 反對給付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일반가정 주부들은 그가 지불한 視聽料에 의해 維持되는 公共텔레비전에 대해 正直한 情報을 提供해주기를 要求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中產層의 일종의 變革이 시작

된 것이다.

한편 1980년 5월에 들어선 全政權은 그의 主要事業으로 韓國의 國際化事業을 展開했다. 올림픽이 初期의 주 슬로건이 되었고 頂上外交方式이 뚜렷이 나타났으며 「太平洋時代」가 始作되었다. 이러한 過程에서 貿易自由化가 當然한 結果로 나타났다. 이 政權은 이 路線에 따라 弘報活動을 集中的으로 展開했으며 國際化路線에 대한 國民들의 支持를 얻는데 힘썼다.

政府의 課業으로써 이 選擇은 合理的인 것이었다. 이것은 國際的인 脈絡에서 뿐만 아니라 특히 韓國的인 脈絡에서 意味가 있었다. 南北으로 갈려진 國土分斷狀態가 40년간 持續되고 休戰後 印象的인 産業化의 記錄을 세움에 따라 國民들은 適切한 所屬感 즉, 그들도 國際社會의 일원이라는 認識을 매우 必要로 하였다. 그들은 그들이 國際的으로 認定을 받을수 있는 일들을 슬기롭게 遂行할 能力이 있는 國民으로 받아 들여지기를 원했다. 참으로 國際化의 課業은 이러한 必要性에 아주 잘 符合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課題는 이를 始作하는데 있어 이의 後援者들로부터 全幅的인 支持를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한 重要的 論理的인 一面을 가지고 있었다. 純粹한 國際化事業은 그 性格上 純粹한 國內의 民主化가 要求되는 것이었다. 國內問題에 있어 받아들일수 있는 民主化過程의 徵兆가 보이지 않고는 國際化事業은 國內에서나 國外에서나 成功할 수 없는 것이었다. 國內的으로는 이것이 政治的인 運營方式에서 벗어날 必要가 있었다.

時間의 推移에 따라 해야할 課題들도 변해야 한다. 보다 좋은 教育을 받고 보다 將來性이 있고 보다 國際化된 國民들에게 正當性을 賦與하는 새로운 課題가 必要했다. 다행히도 一連의 극적인 사건들이 1987년 6월말 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1988년 9월의 올림픽 開催時까지 모든 憲法論議를 禁止시켰던 全斗煥大統領은 政治的인 會談을 통해 野黨指導者인 金泳三씨와 만났

다. 그 후에 이 政權의 承繼者인 盧泰愚씨가 野黨의 要求條件인 大統領直選制를 받아들였고 大統領自身도 이를 받아들였다. 妥協의 實際的인 表象으로써 오랫동안 政治活動禁止措置에 묶여 있던 또 한사람의 野圈指導者인 金大中씨도 解禁되었고 새로운 政府를 誕生시킬 大統領總選舉가 實施되었다.

지금 現政府는 中産層의 물결과 올림픽固有的인 民主的인 方式에 強要되어 마침내 韓國의 普通사람들이 억누를 수 없는 목소리로 부르짖고 있는 民主化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徵兆를 보이고 있다. 民主化로 가는 길은 아직도 險難하지만 確固한 出發이 現在 進行되고 있다.

5. 半世紀에 걸친 發展旅程에서 얻은 教訓과 將來 展望

半世紀에 걸친 韓國의 發展要因은 經濟發展이 先導했던 教育的인 變化였으며 經濟發展은 政治發展을 強要하는 契機가 되었다.

發展의 前提條件이 되었던 大衆教育은 獨立運動의 背景을 가진 政治理念이 뚜렷한 教育者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 후에 實務指向的인 官僚들이 軍政治勢力의 庇護下에 經濟開發事業에 着手했으며 이 軍의 政治勢力은 進取的인 産業化計劃을 통해 正當性을 追求했다. 그 결과 活氣 넘친 産業 分野에서 育成된 방대한 규모의 中産層이 出現하였다. 한편 歷代政權들은 成功的인 經濟開發事業의 必然的인 결과, 즉, 經濟發展과 對等한 政治發展의 必要性을 把握하지 못했다. 이것은 드디어 방대한 中産層의 變化에 대한 要求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要求는 統治者인 엘리트들에게 民主的變化에 대한 要求를 받아들여도록 強要했다.

여기서 분명히 얻은 教訓은 成功的인 發展課題는 時代變遷에 따라 時宜適切하게 調節을 할 수 있도록 包括的이고 彈力的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政府運營의 경우가 그 한 예로 이것이

그의 正當性 하나만을 위해 너무 오랫동안 經濟開發事業에만 依存해왔다.

예를 들어 1960년부터 15년이 경과한 1970년대 중반에 朴政權은 그의 課業을 擴大할 必要性을 느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世代가 새로운 産業社會의 運營을 擔當 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 政權은 機會를 喪失했고 이 중대한 시기에 後退했다. 그 結果 엘리트들의 課業과 國民들의 期待사이에는 더 큰 間격이 벌어졌으며 이로 인해 政治的인 落後現象이 일어난 것이다.

또한 全大統領이 이끌었던 前政權은 1985년 2월의 總選舉에서 명확한 信號를 보냈다. 이 選舉에서 國民들은 그들의 直接投票에 의해 次期政府를 選擇할 수 있는 權利를 분명히 要求했다. 그러나 政府는 2년이상 이것을 피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1987년 6월에 결국 全政權은 이를 認定하고 國民大衆의 要求를 받아들였다. 變遷하는

時代潮流에 뒤늦게 副應함으로써 韓國의 政治에 많은 苦痛과 變形을 가져다주었으나 결국 民主發展에 대한 진정한 希望에 찬 어떠한 變化가 일어나고 있다.

4백년전 朝鮮王朝의 卓越한 學者兼 官吏였던 李栗谷先生은 1590년대에 宣祖大王에게 上書를 올려 다음과 같이 進言한 일이 있다.

「나라에서 할 일들은 때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는 根本的으로 세가지가 있는데 이는 (a) 創業 (b) 定立 (c) 改革입니다. 만일 改革이 必要할때 定立에만 執着한다면 이는 마치 藥을 마다하여 죽음을 기다리는 병든 어린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現代의 韓國사람들이 栗谷先生으로 부터 배웠으면 한다. 韓國사람들은 이 敎訓을 體得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나눌수 있는 무엇인가를 갖게 될 것이다.

Dr. LEE Hahn Been(李漢彬), the former Deputy Prime Minister 紹介

다음은 3월 9일 개최된 미국원자력학회(ANS) 한국지부 第23회 月例技術討論會 席上에서 한국에너지연구소의 李昌健박사가 李漢彬전부총리를 소개한 내용이다.

As of today, the social status of the American Nuclear Society Korea Section is quantum-jumped from the Ministerial level to the Deputy Prime Minister's standard, so far as the invited speaker is concerned.

At the same time, the horizon of our view is widened, elevated and further brightened from microscopic nuclear approach to macroscopic glob-

al or national viewpoint, and from static observation to dynamic insight by having this invited speaker with us.

In the Far Eastern region, all the small fish like me put their family name in the rear when meeting with the Western people, so that my name in passport is Chang Kun Lee although the family name of the Koreans should come first legally.

On the contrary, however, big shots stick to their own name as it stands like Chiang Kai-Shek, Mao Tse-tung, Teng Shao-ping, Noh Tae-woo and the like.

The full name of the speaker this morning is written as LEE Hahn Been, and this is a good indication that he is a big shot.

Dr. LEE Hahn, being a professor at Kyung

Hee university, is a noted speaker, writer and a heavy weight advocate in the academia especially in the field of futurology.

His papers, articles and books are widely read and deeply appreciated by the intellectuals, and his statements in speech, radio broadcast and TV appearance always become the topics of today.

He received B.A. and Ph.D. degree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was also conferred with an MBA from Harvard (University) Business School during the Korean War.

His public service includes Budget Director and Vice Minister of Finance in 1958-61; as well as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Economic Planning Board from December 1979 to May 1980. Please recall that this period was very important in the democratization path of Korean history.

Between the above two periods of governmental service, which is roughly 18 years apart, he was Korean Ambassador to Switzerland, Austria and European Economic Community; dea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director of Technology and Development Institute at the East-West Center, Honolulu, Hawaii; as well as president of Soong Jun University and president of Ajou Institute of Technology.

He is currently trustee of the Aspen Institute of Humanistic Studies in the State of Maryland, and vice-chairman of the Pacific Forum in Honolulu. A few days ago, he was appointed, according to the newspapers, the chairman of Human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He has published several dozens of academic papers and at least 12 books, one of which is entitled, as you see here, "The Era of Ordinary People".

The most attractive and popular slogan in the heyday of the last election campaign was the Era of Ordinary People or the Age of Common Men which was adopted as catch phrase by the ruling party. As a matter of fact, that slogan was first suggested and advocated by Professor Lee for many years after he had left the government in May 1980.

It is my understanding that the Democratic Justice Party started using that catch phrase

without even paying any royalty or copyright to the inventor.

Yet they are very faithful disciples of Prof. Lee.

The verbal expression which reads "the Jack of all Trades is apt for him because of very fact that Prof. Lee is really the Jack of all Trades and Master of Many.

I'll list only a few of them here today.

In addition to his excellent capacity of a quite few Oriental languages, he is equipped with very good command of French, German and some English, and all of such are attributed to his superb knowledge of Greek and Latin.

When we were students, we studied the Bible, the New Testament together, in ancient Greek and Latin.

When we were students, we studied the Bible, the New Testament together, in ancient Greek.

And whenever the professor did not show up in time it was always Dr. Lee who was asked to substitute for giving lecture, and I felt that his teaching was equivalent or slightly superior to that of professor.

That's why I still memorize the Lord Prayer in Greek, and I feel that God understands my Greek.

When he was about to leave Switzerland as the Korean ambassador, he was once invited by German-speaking friends to a farewell party.

Apparently the then Ambassador Lee was deeply moved by their hospitalities at that time so that he expressed his mixed feelings to the audience by means of an impromptu verse in German, and, according to my observation by reading it carefully, the poem is compatible to those of Heinrich Heine and Rainer Maria Rilke.

Dr. Lee is also endowed with musical talents both in vocal and instrumental play.

Let me confess that, since I have always been under some sort of inferiority complex to him for the past 40 years, I have been obliged to call him 형님 or Big Brother.

I am sure many of you may have the similar feeling to mine.

Now our Big Brother will respond to the Questions & Answers after speaking on "the Korean Development: Dynamics, Problems and Lessons".